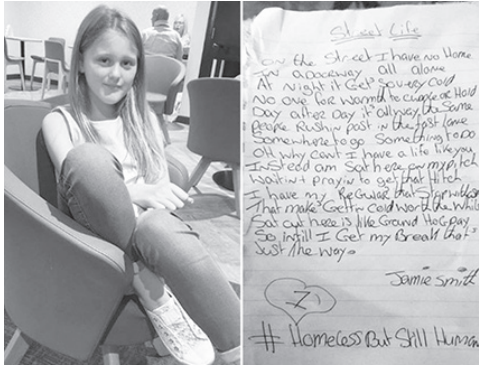


## 용돈 건넨 소녀, '시'로 보답한 노숙인

모아둔 용돈을 모두 노숙자에게 건넨 소녀와 그런 소녀에게 보답하고자 손수 쓴 시를 전달한 노숙인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



해진다. 클레이턴은 “딸의 인간미와 사려 깊음에 놀랐다.”면서 “금보다 귀한 마음을 가진 딸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영국 맨체스터의 안데일 쇼핑센터. 언니 케이티와 함께 외출한 조지 달링턴(10·왼쪽 사진)은 이곳에서 노숙인 한 명과 마주쳤다. 식당가에서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노숙인 앞에는 찌그러진 냄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달링턴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더니 곧장 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주었다. 달링턴의 어머니 하이디 클레이턴은 “딸은 지갑을 탈탈 털어 노숙인의 냄비에 넣고는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를 건넸다.”라고 말했다.

달링턴이 노숙인에게 전달한 돈은 1.45파운드(약 2달러). 이 돈은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 중 남은 전부였고, 소녀는 이 돈으로 사탕을 사 먹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숙인을 본 달링턴에게 사탕을 사 먹는 일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달링턴은 왜 노숙인에게 용돈을 모두 주었는지 묻는 엄마에게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표정이어서 가슴이 아파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

해진다. 클레이턴은 “딸의 인간미와 사려 깊음에 놀랐다.”면서 “금보다 귀한 마음을 가진 딸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소녀의 째뚍돈을 받아든 노숙인 제이미 스미스 역시 달링턴에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어 했다. 그는 소녀의 작은 손에 직접 쓴 시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쥐여주었다(오른쪽 사진). 시의 제목은 ‘스트리트 라이프’ (Street Life)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이 없는 나는 길거리에 홀로 있다. 밤이면 냉기가 스며 들지만, 나를 안아줄 사람 하나 없다. 하루하루가 똑같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나는 왜 저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가? 그저 구걸이나 하고 있을 뿐이네. 그래도 구걸하는 나를 지나치지 않는 낮익은 이들의 미소가 얼마간은 추위를 녹여준다. (중략) #노숙자, 그래도 여전히 사람’

이 시를 공유하며 클레이턴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구든 그들만의 사연이 있다.”면서 “나와 달링턴은 언젠가 스미스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가 원하는 삶의 길 위에 올라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범죄자의 필수품 된 ‘실리콘 가면’



실리콘 가면을 쓰고 노인으로 변장하고 한 행을 탈려던 권총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에서 발생한 일이다.

범인은 완벽한 ‘가짜’였다. 얼굴뿐 아니라 권총도 가짜였다. 강도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실리콘 가면을 뒤집어쓰고 노인으로 완벽하게 변신하고 범행에 나섰다. 강도는 인질까지 잡으며 돈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순순히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했다. 돌연 불안해진 강도는 갑자기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도주할 생각이었지만 창문에서 떨어지면서 한 쪽 다리가 부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의 정체는 한때 이 은행에 근무했던 직원이었다. 가슴까지 내려오는 실리콘 가면을 사용한 건 자신의 얼굴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실리콘 가면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면서 “범행에 성공했다면 범인을 특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실리콘 가면을 이용한 범행은 최근에만 두 번째다. 지난 3월에는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73년을 선고 받고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클라우비뉴 다실바가 19살 딸로 변장하고 탈옥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다실바가 19살 소녀로 완벽한 분장할 수 있었던 것도 실리콘 가면 덕분이다. 탈옥 혐의로 독방에 갇힌 다실바는 이튿날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실바가 완벽하게 분장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리콘 가면을 범행에 이용하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범죄자에게 실리콘 가면은 필수 도구가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하늘에서 떨어진 ‘금속 우박’의 정체

하늘에서 ‘금속 우박’ 수백 개가 떨어져 1명이 다치고 여러 대의 자동차와 가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쯤 이탈리아 로마 피오미치노의 이솔라 사크라 하늘에서 난데없이 금속 파편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 25대와 주택 12채가 파손됐으며 54세 남성은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살아있으니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가 난 이솔라 사크라 지역의 한 주민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며 “총알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주민 신고가 빙발치자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며, 주민들은 안전이 확보된 뒤에야 거리로 나올 수 있었다. 주민들은 떨어진 파편들을 공개하며 그 크기가 10~20cm가

지 매우 다양했다고 증언했다.

이 파편들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이하 다빈치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에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여객기는 로마를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노르웨이항공 소속 보잉787기로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객기는 다빈치공항으로 회항했다.

다빈치공항은 이솔라 사크라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이탈리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항이다. 그러나 공항과 인접한 이솔라 사크라와 프레제네 지역 주민들은 늘 비행기 관련 사고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주민은 “언젠가 비행기가 집 안에 착륙할 거라고 항상 말해왔다.”면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된 공항 인근 지역에 마땅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b>Implant</b> <del>\$1700</del> → <b>\$999</b>	<b>Implant</b> <b>Free Consultation</b>	<b>Exam</b> <b>X-ray</b> <b>Cleaning</b> <b>\$35</b>
<b>Crown</b> <del>\$500</del> → <b>\$400</b>	<b>잇몸치료</b> <del>\$600</del> → <b>\$400</b>	<b>틀니</b> <del>\$1200</del> → <b>\$850</b>

#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b>Irvine</b> <b>Tel: (949)253-8300</b>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b>L.A.</b> <b>Tel: (323)660-2005</b>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b>Hacienda Heights</b> <b>Tel: (626)333-3000</b>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